

조화와 바구니를 이용한 가을 꾸미기

⇒ 시골길 양쪽에 화사하게 퍼 있는 데이지꽃. 가지당 800원에 판매된다. 포도 무늬가 눈에 띄는 바구니는 크기에 따른 3개 세트에 15,000원이다.



올가을, 매장과 가정에 분위기 변신을 원한다면 적은 투자로 큰효과를 볼 수 있는 조화를 이용해 보는 것은 어떨까? 조화는 꾸미기에 따라 비용을 조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보관에 신경을 쓴다면 여러 해 사용할 수 있는 경제적인 소품이다. 현재 시판되고 있는 조화는 생화와 구별이 안될 정도로 정교한 것에서부터 독특한 이미지를 느낄 수 있는 작품수준의 것까지 다양한 종류가 소개되어 있다.

<진행/박현희>

제품협조 : FLOWER BANK (02)3477-27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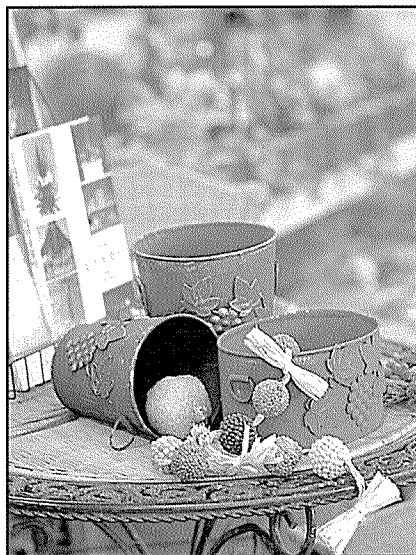


- ① 매장의 한쪽벽과 출입문에 걸어 장식하기에 알맞은 나무 덩굴. 나무를 사용하여 가격은 조금 비싸지만 가을 분위기를 연출하는 데는 그만이다. 크기에 따라 15,000원~80,000원까지 다양하게 꾸밀 수 있다.
- ② 노랑의 화사한 해바라기만 보기만 해도 화사함이 느껴진다. 해바라기는 한 묶음당 2,200원. 정교한 메탈 바구니는 3개 세트에 6,000원에 판매된다.
- ③ 코너를 장식하기에 좋은 갈대를 이용한 장식품. 가을을 대표하는 갈대는 가지당 2,000원이다.
- ④ 자세히 보지 않으면 생화로 착각할 것 같은 코스모스. 가지당 1,200원에 판매한다. 화병에 꽂아두는 것만으로도 가을의 분위기를 물씬 느낄 수 있다.

가을 매장에 어울리는 바구니 3선



포도모양의 메탈 손잡이가 눈에 띄는 바구니. 3가지 크기가 있으며 가격은 개당 5,000원이다.



수납은 물론 장식으로도 손색없는 강통 바구니. 원형 3개세트에 18,000원, 타원형은 5,000원에 판매된다.



투박하면서도 고급스러운 4각 등나무 바구니. 3가지 크기 세트에 10,000원이다.